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5

예레미야 애가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s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3 : 22, 23)

חֲסָדֵי יְהוָה כִּי לֹא-תִמְנָנוּ כִּי לֹא-כָלוּ רַחֲמָיו
חַדְשִׁים לְבִקְרִים רַבָּה אֲמוֹנַתְךָ :

예레미야 애가 차례

예레미야 애가 서론	〈10제〉	317
제 1 장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다	〈21제〉	321
제 2 장 예레미야가 시온의 멸망을 슬퍼하다	〈15제〉	327
제 3 장 예레미야가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다	〈20제〉	332
제 4 장 예루살렘이 패망되다	〈14제〉	339
제 5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다	〈15제〉	344

예레미야 애가 특별 자료 차례

예레미야 애가 서론 〈연구 자료〉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성과 주제	320
제 1 장 〈본장의 요절〉		326
제 2 장 〈화보 자료〉	빨 달린 수소 탈	331
제 3 장 〈화보 자료〉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338
제 4 장 〈화보 자료〉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개	343
제 5 장 〈연구 자료〉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	348

예레미야 애가 서론

1. ㉠ 본서의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이것은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삼았던 모세 오경처럼 본서의 첫 단어 <에카>를 그대로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다.
- (2) 여기서 <에카>는 ‘아!’, ‘얼마나!’란 뜻을 지닌 감탄사인데 랍비들은 이 말 대신 애가(哀歌) 혹은 만가(挽歌)라는 뜻을 지닌 <키노드>라는 말로 본서의 제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 (3) 이 <키노드>는 원래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사용되었던 주문(呪文)에서 유래된 말인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데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로 그 의미가 변하였다.
- (4) 이 <키노드>란 말은 탈무드(Talmud)와 70인역(LXX)에서도 제목으로 채택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예레미야 애가’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시리아 역이나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2. ㉠ 본서의 저자와 저작 연대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은 역사적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성경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 그렇지만 헬라어 역본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역에는 1:1 앞에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애가로 울며 말했다’는 기록이 있고 벌게이트(Vulgate) 역이나 탈굼(Targum) 역에서도 같은 말이 기록되었다.
- (3) 이외에도 예레미야서와 본서가 지닌 상호간의 유사점에서 그 저자는 동일 인물인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것은 두 책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민족적 죄과(罪過)와 거짓 선지자들과 맺은 제사장들의 군사 동맹을 유다 백성들이 너무 신뢰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 (5) 또한 두 책에는 서로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의 딸’(예레미야서)과 ‘처녀...’(애가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모두 <바트>란 단어로 썼으며 각 권에서 20번 가량 나타난다(참조, 1:6; 2:1; 4:11; 렘 4:11; 6:2; 8:21).
- (6)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의 두려움(3:57; 렘4:24)과 예루살렘의 적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4:22; 렘 2:3) 등이 두 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7) 이런 점에서 두 책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며 더우기 예레미야가 두 책의 단일 저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 (8) 이와 같이 본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본서는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장들간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기는 하나, 예루살렘의 멸망(B.C. 586) 후 오래 되지 않는 시대, 즉 예레미야가 생존(B.C. 650 - 585)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 (9) 즉 본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다.

3. **㉠** 본서가 지닌 형식상 특성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대부분 구약의 시가서에서처럼 시적 운율을 지닌 히브리어 알파베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2) 특히 본서는 히브리 시(詩)에 대한 운율적인 구조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가서이므로 다른 히브리 시에서보다 시적 형식이 더욱 뛰어나다.
- (3) 그리고 문장의 종류 면에서 살펴본다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애가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5장은 애가라기 보다 기도문에 더 가까우며, 다른 장과는 다르게 알파베트 순서가 완전히 무시되었다.
- (4) 또한 3장에서는 본서가 지닌 슬픈 내용을 가슴에 새겨 사람들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알파베트를 세 번씩 반복해서 썼지만 시가 지닌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 (5) 2-4 장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베트 순서로 쓰지 않고 <아인>과 <페>의 위치를 바꾸어 사용했다.
- (6) 여기에 대해 라이트푸트(Lightfoot) 박사는 <아인>과 <페>의 위치를 바꾸어 70이라는 수자의 의미를 지닌 <아인>을 강조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해가 7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상기시켰다고 주장했다.

4. **㉠** 본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운명은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 (2) B.C.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Carchemish)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다는 바벨론에 복속되고 말았다.
- (3) 그리고 B.C. 60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시 애굽에 쳐들어갔지만 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 (4)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때를 이용하여 바벨론에 대해 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쳐서 1만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 (5) 그 후 바벨론은 3차례나 유다를 침략하여 마침내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다를 멸망시켰다.
- (6) 이러한 환경에서 예레미야는 당시의 파멸을 슬퍼하며 날카로운 묘사로 애가를 기록하였다.

5.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되새기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엄하게 심판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 (2)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어려운 재난에 직면할 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를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본서는 단지 과거의 슬픔에 대한 묘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찬란한 희망의 빛을 보여 줌으로(3장) 성도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다.

6. **㉠** 본서를 통하여 나타내려는 예레미야의 의도는 무엇인가?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당한 비극을 비통한 슬픔으로 표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시한 데 있다.
- (2) 유다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도록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불만과 슬픔의 고통을 억제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 (3) 이러한 예레미야의 지대한 노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게 함으

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그에게 인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4) 유대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애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본서를 성전 파괴 기념일에 읽도록 정하였다.
- (5) 한편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전투적 성격을 본서에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는 점과 유다가 당한 심판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연관성을 가진다.
- (6)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나타내려는 궁극적 의미는 성경의 전체 흐름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있다.

7. ㉠ 본서가 취급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 ㉠ (1) 본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통곡을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을 과부가 되어 쫓겨 난 공주로 묘사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킴으로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비참함과 굴욕을 크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더 깊은 누우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 (2)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3) 또한 본서는 신정 정치가 몰락할 때에 경건한 신자가 지녀야 될 태도를 보여 준다. 이것은 심판과 보상에 대한 신명기적 교리의 반복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 평화와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신명기적 교리의 관점으로 보아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쌓아 올린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8. ㉠ 본서가 쓰인 용도에 대하여 말하라.

- ㉠ (1) 이 애가는 압 월(태양력 7, 8월) 제 9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에 낭독되었는데 항상 5:21을 22절에 반복 낭독함으로 긍정적인 내용에 가까와지도록 했다.
- (2)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고난 주간(Holy week)의 마지막 3일 동안에 읽고 있다.
- (3)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유대교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9.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황폐된 예루살렘 성 / 1:1-22
 - ① 환난으로 예루살렘 성이 훼파(毀破)되다 / 1:1-11
 - ② 예루살렘 성이 당한 고통 / 1:12-22
- (2) 예루살렘 성의 참상(慘狀) / 2:1-22
 - ① 심판하시는 하나님 / 2:1-10
 - ② 선지자의 비탄(悲嘆) / 2:11-22
- (3) 선지자의 혼란스러운 마음 / 3:1-66
 - ① 예레미야의 슬픔 / 3:1-8
 - ② 예레미야의 희망 / 3:9-42
 - ③ 예레미야의 고통 / 3:43-54
 - ④ 예레미야의 기도 / 3:55-66
- (4) 고난당한 예루살렘의 백성들 / 4:1-22
 - 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기간 / 4:1-12
 - ② 포위당한 이유 / 4:13-20
 - ③ 에돔의 징벌과 미래에 대한 희망 / 4:21, 22

(5) 유다 백성을 위한 기도/5:1-22

① 회개의 기도/5:1-18

②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선지자의 기도/5:19-22

10. ㉞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㉞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5:21).

연구자료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성과 주제. 본서를 이루고 있는 주요 배경은 공공(公共)의 비탄(悲嘆)이다. 게다가 본서에 나오는 다섯 편의 시는 그 제재(題材)에 있어서 시편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본서의 저자는 민족적 재난과 그로 인한 수치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한 민족을 대표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좀더 정확히 묘사하기 위하여 저자는 조가(弔歌)와 비가(悲歌)라는 문학적 형식을 빌어 본서를 기술하고 있다. 이중 조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구조적 반전(反轉)이다. 즉 조가는 찬양과 애도가 그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에 대한 찬사(讚辭)는 계속적으로 그의 생전의 영광과 공덕 곧 신체적인 탁월함(참조, 4:7; 사 52:14; 53:2)이라든가 그의 부귀와 호화로운 의상, 수많은 자녀와 아내들(4:5; 겔 27:3) 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러나 애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전과는 다른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 크게 슬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생존자들의 유기(遺棄)된 형편에 대하여 슬퍼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된다(1:1). 특히 고인이 당하였던 비참한 죽음(1:19)과 이와는 달리 크게 기뻐하는 대적들의 사악한 모습(2:15, 16)에 대한 비탄의 글은 읽는 자로 하여금 비감(悲感)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과 대비되는 현재의 비참함과 굴욕은 '그때'와 '지금'('본래'와 '이제')이라는 두 단어로 정교히 기술되고 있다(참조, 1:1). 한편 이상과 같은 구조적 반전은 본서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는 달리 암울하고 비참한 현재의 상황은 온 백성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촉구해 준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이전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본서의 주제와 관련된 본서의 두드러진 문학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제 1 장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다

단락구분 1-9 예루살렘 성이 비침한 처지에 이르다 / 10-12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 13-19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지를 하소연하다 / 20-22 원수들에 대한 저주

1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다

2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3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며 그 모든 꺾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4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5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6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며 저의 목땀은 꿀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릴 같도다

7 예루살렘이 환난과 곤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함이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8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9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놀라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0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12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

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3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14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엎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음이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15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며 처녀 유다를 슬픔에 빠셨도다

16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였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불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22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남은 백성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죄책감을 느낀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다.
- (2)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묘사하여 그 고통을 모두에게 항변(抗辯)하였다. 이 항변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원수들에 대한 저주도 내포되어 있다.
- (3)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며 항상 당신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히12:1,2).

2. **㉠ '이 성'은 어디를 말하는가? (1절)**

- ㉠ (1) '이 성'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여진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 (2)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였다는 것과 당시 팔레스틴의 주요 상업 도시들 중 하나였다(참조, 대하1:15-17)는 사실로 보아 매우 큰 도시였음에 틀림없다.
- (3) 과거에는 큰 도시로 이름을 떨친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로 완전히 훼파(毀破)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번창했던 도시도 하루아침에 황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참조, 시127:1).

3. **㉠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열방 중에 공주'라고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과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각 지방들 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주관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잘 증거되고 있는데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주관한 것(삼하 8:1-4; 10:6-19)과 솔로몬의 통치에서(왕상 4:21, 24), 또한 웃시아 치하(治下)에서(대하 26:6-8) 명확히 드러난다.
- (3) 특히 스 4:20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君王)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賦稅)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 (4) 이렇게 예루살렘이 부강하게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왕들과 백성들의 신앙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신앙 태도가 바르지 못할 때 항상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민 25:3; 렘 7:23).
- (5)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참조, 신 12:28).

4. **㉠ '조공'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조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쓰>는 원래 '노역'(勞役)이란 뜻을 지녔다.
- (2) 이러한 의미를 본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한때에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렸던 자가 이제는 친한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즉 예레미야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연결시켜서 지금 왜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어야 하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다.
- (4) 우리는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한탄만 한다. 이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요건 중에 하나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발견하도록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행 14:22; 롬 12: 12).

5. **㉠ '사랑하던 자'와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이 말은 예루살렘과 동맹을 맺었던 많은 나라들(애굽, 모압, 암몬, 베니게)을 가리키는데, 특히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을 지칭한다.
- (2)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나라와도 서슴지 않고 동맹을 맺었다.

(3) 이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기 보다 인간을 의지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들은 믿었던 나라에게서 오히려 배신당하였고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았다(참조, 왕하 24:2).

(4) 이처럼 우리가 의뢰할 대상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가변적(可變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자이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 대한 의뢰는 영원하다(참조, 시 125:1).

6. **㉠** **잡혀간 유다 백성의 고통은 어떠한가? (3절)**

㉠ (1) 유다 백성은 압박과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이 말은 억지로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에 응했다는 뜻이다(Calvin).

(2)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갈대아인들의 폭정에 이기지 못하여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기를 자청했기 때문이다(참조, 렘 43:4-7).

(3)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평강을 얻으려고 자기 나라를 떠났지만 포로된 신세로 어느 곳에서도 평온한 거처를 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모욕과 경멸만 받을 뿐이었다.

(4)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인간의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5)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성도가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시하며 그 뜻에 따르는 것이다(참조, 신 30:1).

7. **㉠**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이 말은 예레미야가 ‘시온으로 통하는 도로의 황량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인법(擬人法)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지된 데 대한 비통한 슬픔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2) 전에는 이 시온의 도로가 예배와 절기를 지키려는 유다 백성들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배와 절기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3) 그러나 당시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므로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자 시온의 도로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4) 과거의 유다 백성들 및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한다. 그렇지만 신앙의 태도는 그들에 비해 더 철저하지 못하고 나태해 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신앙 생활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 언제 우리 앞에 유다와 같은 처지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5) 과거를 생각해 보라. 일제의 압박 속에서나 공산 치하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환경이 좋을수록 신앙의 경성함이 필요하다(참조, 눅 21:36).

8. **㉠**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困苦)를 받았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1) 이 말은 절기를 맡아 주관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사장들이 갈대아인의 압박 때문에 탄식하고, 절기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처녀들(참조, 시 68:25; 렘 31:13)도 슬퍼한다는 의미이다.

(2)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 성전이 파괴되고 감사도, 제사도, 찬양도 없게 되자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하게 되었다.

(3)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참조, 신 10:12, 13). 성도가 예배

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9. **㉠** ‘대적’과 ‘원수’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5절)

㉠ (1) 유다를 압박하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2) 이 말을 설명한 귀절인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라는 표현은 모세가 신28:13에서 했던 말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이다. 유다 백성이 당한 이러한 상황은 정작 신28:44의 말 씀을 이룬 것이다.

(3) 사실상 유다 민족이 쇠퇴할 때 이에 반하여 바벨론은 찬란하게 번성하였다(참조, 욥12:6; 시122:6; 렘12:1)

(4) 이러한 원수의 번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의해 생긴 것도 역시 아니다. 다만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일 뿐이다.

(5) 이것은 죄를 지은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레26:21).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참조, 고후1:3,4).

10. **㉠**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간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 어린아이들까지도 고난을 당해야 하였다.

(2) 대적 바벨론 군사에게 끌려가는 소년들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비참함과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3)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철저하시다. 그 철저하심은 인간에게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겔18:30).

11. **㉠**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 (1) 먼저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으신 것(시132:13)과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렘31:31)을 통해 나타난다.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온갖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3)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최고의 영광을 가졌던 예루살렘이 영예를 빼앗기고 대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4)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은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참조, 2:1, 6; 삼상4:21, 22).

(5)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길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을 펴신다(참조, 렘25:5; 26:13).

12. **㉠** ‘목백’(牧伯)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6절)

㉠ (1) 예루살렘이 아주 곤경한 시기에 있을 때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 족속들을 가리킨다.

(2) 이들은 본질에서 짊을 찾지 못한 사슴으로 묘사되었다. 당시 사슴은 발이 빠르고 귀한 동물로 취급되어졌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굶어서 도망할 힘을 다 잃어버린 사슴으로 묘사되었다.

(3)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였던 시온의 방백(方伯)들은 바벨론의 무리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4)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내리신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징계로 자책(自責)하게 만드신다(참조,

잠 5:7-9).

13. **Q** '옛날의 모든 즐거움'은 언제 누렸던 즐거움을 가리키는가? (7절)

- A** (1)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융성하였던 적이 있다.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가 그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를 돌이켜 보곤하였다(참조, 시 42:3, 4).
- (2) 한편 본질의 이러한 표현은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 (3)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렇지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축복이 올 것을 기다리며 생활하게 된다(참조, 신 4:30; 대하 33:12).

14. **Q** 유다 백성들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8, 9절)

- A** (1) 유다 민족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정과 불경건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참조, 렘 32:30-35).
- (3)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장이시며, 결코 평범한 거역 때문에 징벌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징벌하신다(참조, 단 9:5).

15. **Q**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서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10절)

- A** (1)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보물들과 제기(祭器)들을 약탈해 갔다. 이방인들은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법(참조, 신 23:2, 3; 겔 44:7, 9)인데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전에 들어와 만행을 저질렀다.
- (2)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에 바벨론 군대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되는데, 약탈과 파괴를 하였으니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심한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 (3) 이러한 일의 원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외식(外飾)으로 가득 차 있어 성전의 시설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 그것이 외적(外敵)의 침입을 막아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4:3; 렘 7:3).
- (4)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보이는 것에 얽매이기 쉽다. 교회당 자체를 신성시하는 행위, 성상(聖像)을 숭배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활이 필요하다(참조, 요 20:29).

16. **Q**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11절)

- A** (1) 예루살렘 성의 포위로 유다 백성들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가진 모든 보물을 팔아야 했다.
- (2) 이것은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양식이 결핍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 (3) 그러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신자의 태도를 가르쳐 준다(참조, 삼하 22:7).

17. **Q**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은 무엇인가? (12절)

- A** (1)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며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이상의 것을 느꼈다.
- (2) 본절에서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다른 민족에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근심이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본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욱 큰 징계를 하신다'(참

조, 삼하 7:14)는 사실을 알려 준다.

18. ㉠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떠하였는가? (13-15절)

- ㉠ (1) 범죄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불이 위로부터 퍼부어져 예루살렘 성은 골수(骨髓)까지 산산히 짓밟혔고 또한 그 발에 함정을 파서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은 그 성의 멸망을 초래하게 하셨다.
- (2) 그리고 처참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14절)로 멍에를 메게 되었고 그 압박 아래 죽은 시체의 피는 포도주처럼 흘렀다(15절). 본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지적하였다.
- (3)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활 중심에 있는 하나의 원과 같다. 거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은 심판의 영역에 침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벗어나길 힘쓴다면 패망만 있을 뿐이다(참조, 대상 28:9).

19. ㉠ 유다 백성들이 당한 수모는 어떠하였는가? (16, 17절)

- ㉠ (1) 유다 백성은 징벌을 받을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유다 백성의 원수가 되었다. 진정으로 그들은 그때 열방 중에서 가장 '불결한 자처럼' 취급당하였다.
- (2) 즉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따른 그들의 비참한 광경은 그들이 범했던 최악의 추태를 남들에게 드러내어 보이게 되었다.
- (3) 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된다는 것은 실로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신앙으로 끈기있게 견뎌야 한다(참조, 롬 12:12).

20.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18, 19절)

- ㉠ (1)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다. 이와 동시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와 관련이 있으며 지금 비참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2)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유다 백성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강조하였다.
- (3) 성도의 자세는 환난 중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죄과(罪過)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다(참조, 느 9:17).

21.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 (20, 22절)

- ㉠ (1)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대한 동정과 대적들에 대한 보복을 간구했다.
- (2)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원수들이 조롱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의 원수들이 보응받을 사실을 내다보며 기도했다.
- (3) 그러므로 성도는 남의 실패를 기뻐하기 보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고전 10:12).

본장의 요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赤身)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8절).

제 2 장 예레미야가 시온의 멸망을 슬퍼하다

단락구분 1-10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다 / 11-13 유다 백성이 고난을 당하다 / 14-16 유다의 고난을 원수가 비웃다 / 17-19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회개를 원하시다 / 20-22 하나님께 대한 간구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니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궁홀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며 노하시니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3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4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륙하셨음이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붙처럼 쏟으셨도다

5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훼파하시니 처녀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 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훼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니 진노하시니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원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8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훼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니 성과 꼭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9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훼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와의 목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10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턱끝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둘렀음이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에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라

12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고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고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나

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목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들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교와 미혹케 할 것만 보았도다

15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나 하며

16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음이며 궁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훼파하시니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18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0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가 이같이 행하였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끈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21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오며 내 처

너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공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륙하셨나이다
22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1. **㉠** 본장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유다의 멸망이 1장보다 더 격한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행하신 심판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2)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0절에는 주님이 주재하시는 심판이 나타나 있고, 11-22절에는 그 심판을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유다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을 생각치 않고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을 슬퍼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가 많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自己省察)을 하여야 한다 (참조, 신 4:30).

2. **㉠**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라고 예레미야가 외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예레미야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버리셨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불변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름 속에서 무감각해진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 것이다.
- (2)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재앙에 놀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악함은 한층 더 하였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본절을 말한 의도는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강박함을 감화시키는 데 있었다.
- (3)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수백 번 다른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이 인간의 공적(功績)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참조, 롬 11:5; 벰전 5:10).

3. **㉠** '야곱의 모든 거처' 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이 말은 야곱의 목장들이란 뜻으로 유다 지방을 가리킨다.
- (2) 하나님의 진노는 일부 지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미쳤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진노가 무서운 것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 (3) 실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왕국(참조, 삼하 7:24)을 인간이 임의로 더럽혔다는 것(참조, 렘 32:34)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당하도록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
- (4)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殿)이다(고전 3:16).
- (5)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라도 임의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성도는 항상 성결의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고전 6:19).

4. **㉠**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의해 찰리운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힘과 권세)을 자르셨다. 이 진노는 가벼운 반역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경건이 극심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 (2)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통해 그 백성이 재앙을 평범한 방법으로 애통해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맹렬히 격노하신 것은 공정한 일이므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 (3)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 인간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약함을 통하여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5. **㉠** ‘원수’와 ‘대적’으로 비유된 것은 누구인가? (4,5절)

- ㉠** (1) 하나님이다.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수처럼 되셨다.
- (2) 하나님이 원수같이 활을 당기셨고,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약1:13)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렘30:14).
- (3)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하시는 태도이다(참조, 히 12:6).

6. **㉠**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6,7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신 진노의 극한점(極限點)은 당신을 위해 세운 성막과 제단과 성소를 헐어 버리셨다는 사실에 잘 나타났다.
- (2) 하나님께서 제단, 성전, 언약궤, 절기 등 신성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특별히 소용되는 대상이지만 이제는 무시되었고, 던져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 (3)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진노로 대하신다(참조, 사 1:11-13).

7. **㉠** 하나님의 결심은 무엇인가? (8,9절)

- ㉠** (1)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 (2)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온갖 헛된 생각을 함으로써 제멋대로 타락하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므로 우연히 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명령에 따라 헐린 것이라고 했다.
- (3)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 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때에 우리의 자세는 당신께 돌아서서 참회개하는 가운데 복종하며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참조, 욕 22:21).

8. **㉠**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재앙의 충격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10절)

- ㉠** (1)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잠하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유다 백성들)은 실망 가운데 머리를 땅에 숙였다.
- (2) 장로들은 어쩔 줄 모르고 애통해 하기만 하였고 다른 백성들 역시 그들의 행동을 따라 슬퍼하기만 하였다. 예레미야는 장로들이 이런 슬픔을 통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슬픔의 표시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 (3) 우리들은 가끔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한탄만 하였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슬픔과 탄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다(참조, 대하 33:12).

9. **㉠** 예레미야는 슬픔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1절)

- ㉠** (1) 내장이 파열하는 듯한 아픔으로 묘사하였다.

- (2) 예레미야는 자기 몸의 모든 기관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본질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크나큰 재난으로 인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을 보여 주는 말이다.
- (3) 예레미야가 통곡하여도 백성들 중에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이 강박하여 옳은 말을 수용할 줄 모르고 감언이설(甘言利說)에만 귀기울이는 이기주의(利己主義)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자멸만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음성)에 귀기울여야 한다(참조, 창35:3).

10. ㉠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곤경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12, 13절)

- ㉠ (1) 기근이 심해서 음식을 찾으며 어머니의 품안에서 죽어 가는 아이들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예루살렘의 파괴 정도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 (2)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기근을 이처럼 의인법으로 묘사하여, 그 처참함을 날카롭게 나타내었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혹하게 벌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참조, 출 15:7).

11. ㉠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14-16절)

- ㉠ (1)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대신에 평화와 영화를 예언하였다(참조, 렘 8:11).
- (2)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참과 비웃음만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 (3)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만을 줄 뿐이다. 당시에는 그 말이 정당한 것 같고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패망뿐이다(참조, 요일 4:1; 계 20:10).

12. ㉠ ‘옛날에 명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유다 민족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보여 준다.
- (2) 예레미야는 본질에서 ‘옛날에’란 말을 첨가하여서 유다 백성이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르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옛날에 모세는 이 일에 대해 여러 번 경고로써 예언하였던 것이다(참조, 신 4:25-31; 30:1-10).
- (3)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멀리한 결과이다. 우리의 성품이 강박해지면 해질수록 말씀에 둔감해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소양(素養)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참조, 신 4:2).

13. ㉠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경고하였는가(18, 19절)

- ㉠ (1)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경고하였다. 부언하면 유다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 (2) 그 기도는 눈물로써, 깨어서 간절히 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했다.
- (3)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써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참조, 롬 12:12).

14. ㉠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비극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0, 21절)

- ㉠ (1) 여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 때문에 자기가 사랑스럽게 기르던 아들을 먹게 되었으며, 성전에는 살륙당한 선지자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도로에는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진 시체들이 즐비했다.
- (2) 당시 갈대아인이 행한 살상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대하 36:17).

- (3) 이는 갈대아인들이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받게 하신 것(참조, 렘14:16-18)을 말한다.
- (4)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여 위로를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5) 다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만이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피할 견고한 망대이시다(참조, 시 61:3, 4).

15. **Q**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22절)

- A** (1) 백성이 극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2) 당시에는 축제일이 가까울 때면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두려운 일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백성을 괴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덧붙여서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말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배치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참조, 겔 18:30).

화보자료

뿔 달린 수소
탈. 헤라클레이
온 고고학 미
술관에 소장되
어 있는 이 탈
은 그레테 사람
들(Cretans)이
숭배하던 수소
신의 주물(鑄
物)이다.



히브리인들은 '뿔' (horn) 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종종 '힘'과 '권력', '보호'를 상징하였다(참조, 출 38:2; 왕상 1:50; 시 75:10). 이 같은 히브리식 표현법이 본장에도 나오는데 곧 '대적의 뿔'이란 말이다(17절). 그러므로 여기서 '대적의 뿔이 높이 들렸다'는 말은 대적의 세력이 막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예레미야가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다

단락구분 1-18 유다 백성이 당한 환난의 형편 / 19-39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다 / 40-41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 / 42-66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다

1 여호와와 노하신 때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2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3 종일토록 손을 들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4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5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6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오렌자 같게 하셨도다
 7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
 9 다들은 들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10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기다리는 곱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11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12 활을 당기고 나로 과녁을 삼으심이여
 13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5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썩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17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여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회포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 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멩을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29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도
 30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32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34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35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38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시라 긍휼을 빼앗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45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진개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8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 내 눈의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어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노도다

51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에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52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53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어

54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55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57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60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61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훼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63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옵하시라

65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66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시라 여호와와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1. ㉠ 본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낙심과 절망적인 비극에서 경건한 자의 심각한 영적 고통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섭리를 통해서 소망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인정하게 되었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 백성이 당신께 간구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도움을 보내시고, 원수들을 응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 (3) 여기에서 1인칭으로 묘사된 ‘나’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당시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말도 되며 지금 우리를 나타내는 말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간구와 회개가 있어야 하겠다(참조, 대하20:9).

2. ㉠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1-3절)

- ㉠ (1) 흑암에 처하게 하시고 진노의 채찍을 가하셨다.
- (2)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이토록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을 흑암에 거하도록 하셨다.
- (3)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것은 멸절(滅絶)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채찍이다. 이 진노가 당시는 슬픈 것일지라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시련이었다.
- (4) 우리가 이 채찍으로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진노가 정당하고 또한 그 고난은 자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26:16).

3. **㉠**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이 어떠하다고 하였는가? (4,5절)**㉠** (1) 신체적 손상으로 자신의 고통이 처절하다고 말하였다.

(2) 그리고 그 고통은 자신의 주위를 온통 싸고 있어서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예레미야는 덧붙여 이야기했다.

(3) 예레미야는 외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보응에 나타난 증거를 중요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지만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결국 정의대로 극도의 보응을 행하셨다.

(4)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임의로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을 그분께 고해야 한다(참조, 롬 2:5).

4. **㉠** 도움을 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 (6-9절)**㉠** (1) 고난에서 피할 길을 부르짖는 기도에도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못할 환난의 답으로 유다 백성을 들러싸셨다.

(2) 앗시리아인들에게는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가두는 관례가 있었다. 이 귀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묘사하여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접맥(接脈)시켰다.

(3) 사실 유다 백성이 당했던 고통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느껴졌던 것이다.

(4)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자기의 기도가 무익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욘2:32)과 배치(背馳)되는 말이 아니다.

(5)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때때로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들어주실 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연기하시고 지체하시는 이유이다(시 22:1, 2; 눅 18:7).

5. **㉠**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의 처지는 어떠하였는가? (10-13절)**㉠** (1)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기다리듯 여호와의 진노는 유다 백성의 한 발치 앞에 놓여 있었고 곧 그 진노는 유다 백성을 향해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2) 하나님의 진노는 처참하리 만큼 유다 백성에게 미쳤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찢고 절단하듯 황폐와 파괴(1:4, 13, 16), 쓸쓸함과 외로움(참조, 겔 6:14)이 온 유다 땅에 가득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보복을 가하신다(참조, 민 14:35; 렘 4:17).

6. **㉠**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4-18절)**㉠** (1)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했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다.

(2) 이는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닥친 시련에 굴복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짧은 시기 동안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압도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성도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태도이다(참조, 롬 4:18; 히 11:1).

7. **㉠**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9-25절)**㉠**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게 되자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 그는 이 소망을 말함에 있어 단순히 겉으로만 외치지 않고 그의 심령으로 고백하였다(24절).

(3)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이 회개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자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1) 라고 하였다.

8.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환난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 하였는가? (26-33절)

- ㉠** (1)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바라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유다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하였다.
 (2) 그는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 참기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 유다 백성이 주의 은혜를 배우기 원했다(참조, 시 119:71).
 (3) 성도들은 때때로 궁핍하게 되고, 비난과 증상을 당하고, 손해로 괴로움을 당하면서까지 물질적인 일에 비참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신앙의 길을 넓혀 주는 하나님의 방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자세가 성도의 근본 태도이다(참조, 히10:36).

9. **㉠**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34-39절)

- ㉠** (1)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다(37, 38절).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며 사악한 자들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3)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계획에 따른 명령은 그 뜻대로 하신다. 따라서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침에 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속한 것이다.
 (4) 가르침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자를 통해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의 명령에 유의하고, 우리의 삶을 규제(規制)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참된 규율로만 이루어지며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는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참조, 삼하 16:5, 6).
 (6)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다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악행일 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7)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에 종속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지혜는 겸손과 절제이다(Calvin).

10.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40, 41절)

- ㉠** (1) 자기들의 행동을 뒤돌아보아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 그를 의지하며 살기를 요구하였다.
 (2)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유다인의 죄값으로 폐허(廢墟)가 된 후에도 회개와 믿음을 백성에게 전파했다.
 (3) 회개와 믿음의 기회는 사람이 세상을 뜨기 전에는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대 한도로 은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참조, 시78:38; 계2:21).

11.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치 않으시고 어떻게 보우하셨는가? (42, 46절)

- ㉠** (1)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든 대적들에게 유다 백성을 쓰레기와 폐물(廢物) 같이 취급하셨다.
 (2) 유다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한 만남의 길을 자신들의 죄로 막아 버렸으며, 또한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참조, 렘 3장).

- (3)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모든 열방 가운데 천(賤)더기가 되었으며 슬한 비방을 받게 되었다.
- (4) 이러한 보응은 단순한 형벌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환난으로써 그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당신의 자상한 배려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관용(寬容)의 기회는 없고 무서운 환난만 있을 뿐이다.
- (5)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강약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크기를 알 수 있음을 말해 준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채찍으로 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참조, 40절; 호 6:1; 행 26:18, 20).

12. **㉠** 예레미야는 몰락해 가는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7-54절)

- ㉠** (1) 젖은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으로 묘사했다. 그가 이러한 감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참조, 렘 38:6) 이처럼 생생한 비유를 할 수 있었다.
- (2) 예레미야는 유다가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성읍의 잔해(殘骸)를 보면 볼수록 슬픔이 한층 더했다. 더우기 깊은 구덩이 속을 헤매듯이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포기 상태에까지 이르렀다(54절).
- (3) 이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다(참조, 시 2:12).

13. **㉠**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55절)

- ㉠** (1) 예레미야는 죽음을 감지(感知)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았다. 그의 신앙이 마음을 굳세게 했으므로 그는 굴복치 않고 정반대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확고하게 거부했던 것이다.
- (2) 비록 육신적으로는 파멸되었다고 생각했지만(54절), 아직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 (3)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 외친다면 그것은 신앙과 희망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증거이다(참조, 시 22:1).

14. **㉠** 예레미야의 확신은 무엇인가? (56절)

- ㉠** (1) 예레미야는 역경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였다.
- (2) 이것은 그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진지함과 열심에 대한 증인이 되셨다는 말이다.
- (3) 우리들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이 산란하게 되며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참조, 시 37:5; 잠 16:3).

15. **㉠**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였는가? (57, 58절)

- ㉠** (1)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간구하는 자의 곁에 오셔서 도움을 허락하신다고 그는 말했다.
- (2)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을 주시며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 (3)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使役)은 끝이 없으시다.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 (4) 그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참조, 사 12:2; 26:3).

16.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찰하셨다고 말하는가? (59, 60절)

- ㉠ (1)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잔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셨다고 말한다.
- (2) 이런 표현 양식은 하나님의 사역자(使役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행을 감찰해 주시도록 간청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조그만 시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여 절망 속에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자신과 투쟁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물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시하고 주의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참조, 시 10:14; 31:7; 33:13; 히 4:12).

17. ㉠ 예레미야가 60절의 내용을 반복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61, 62절)

- ㉠ (1) 바벨론의 사악한 행동을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려 하였다. 6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들으셨다’는 확실한 말로 나타내었다.
- (2)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악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종일’ 유다 백성을 괴롭혔다고 말하였다.
- (3)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이 잠깐 동안만 미친다면 모두가 극복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잠깐 동안만 환난이 우리들에게 부닥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도구로 만들기 위해 용광로 같은 심한 환난을 장기간 동안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 (5) 그러므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우리들 앞에 간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이 성도의 삶이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참조, 히 12:1, 2).

18. ㉠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63절)

- ㉠ (1) 대적들은 항상 비방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불러 유다 백성을 괴롭혔다(14절).
- (2) 여기에서 ‘얕든지 서든지’라는 말은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다윗이 ‘주께서 나의 얕고 일어섬을 아시며’(시 139:2)라고 말한 내용과 같다.
- (3) 따라서 예레미야도 ‘서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과 행동을 나타내며, ‘얕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조용한 계획을 의미함을 나타냈다.
- (4) 다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적들이 아무 말없이 은밀하게 모의했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일을 시도했든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
- (5)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위를 아시므로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저지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심판장으로서의 직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3:20).

19. ㉠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64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계속 내버려두시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2) 앞 귀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 재앙과 부당한 압박과 치욕까지도 언급하였다.
- (3)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자들을 기꺼이 도와 주리라고 증거하셨다. 포로된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 내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불행한 자들과 억압당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역사(참조, 사 61:1-3)이다.
- (4) 이런 하나님께서 허물며 자기 백성인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러한 이유로써 예레미야는 확신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므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참조, 출 33:19; 스 7:28).

20. Q 대적에 대한 예레미야의 간구는 어떠하였는가? (65, 66절)

- A (1) 대적들의 마음을 더욱 강박케 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간구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만 악한 자들을 박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거듭하여 멸망할 때까지 보응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 여기에서 우리는 대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화의 원인이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4) 더구나 회개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회개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언약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참조, 시 4:1; 20:1; 27:7).

화보자료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파리 병기창(兵器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4세기 삽화이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 일명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의 선지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였으며 정작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예언을 한 자이기 때문이다(렘 6:22-30). 따라서 그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에 젖어 있었는데 그러한 그의 마음이 본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 4 장 예루살렘이 패망되다

단락구분: 1-2 예레미야가 비참하게 된 유다를 보며 탄식하다 / 3-10 예레미야가 기근(饑饉)으로 인한 폐허를 목도하다 / 11-13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다 / 14-16 유다 백성의 참혹상 / 17-20 /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만날 현실 / 21-22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1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2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라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 들개는 오히려 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4 젓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어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5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의로움이어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7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땅한 청옥 같더니

8 이제는 그 얼굴이 숫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9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절립같이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10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11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심이어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13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14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함이어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15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어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6 여호와께서 노하여 흠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치 아니하였음이로다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눈이 상함이어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18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음이어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19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어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음이어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21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네게도 이룰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1. ㉠ 본장의 흐름을 설명하라.

- ㉠ (1) 시온의 방백(方伯)들과 주민들이 무서운 비극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사람의 헛된 기대를 의지했다. 그러나 유다는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다가 죄악의 형벌이 다하는 날 해방될 것이다.

- (2) 예루살렘이 당한 비극은 그들의 심각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예루살렘은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의 대적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인의 피를 흘렸다(17-20절).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회개하여야 했으나 계속 죄악 중에 머물러 있었다.
- (3) 우리들 역시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악한 일인 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에 범하는 잘못이다(참조, 대하 34:31).

2. **㉠**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의 돌들을 예루살렘 도처에 흩어 버린 사실을 가리킨다.
- (2) 그것은 물론 그들이 성전을 멸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것처럼 성전의 돌을 흩어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놀라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이다. 그들이 의식으로부터 성전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으로 그것을 없애신다(참조, 사 1:10-20).

3. **㉠** 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에 비유하였는가? (2절)

- ㉠** (1) 유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모든 위엄을 잃게 되고 질항아리처럼 다른 형태로 몰락했기 때문이다.
- (2) 한편 본질의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했던 예언을 암시한다. 그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들어가 토기 제작하는 과정을 보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다(참조, 렘 18:2-6).
- (3) 토기장은 항아리를 만들 때 그 항아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몇 번이고 고쳐 만든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또한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참조, 렘 19:11).
- (4)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유다 백성들에게 재상고(再詳考)시킴으로 그 경고를 소홀히 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케 하신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 (5) 성도는 항상 말씀에 민감한 생활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악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 도덕은 그 기준을 잃었고, 인간들은 가치관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때 성도들은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활화(生活化)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한다(참조, 수 1:8).

4. **㉠**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광야의 타조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유다 백성의 딸들이 자녀를 소홀히 다루었기에 잔인하다는 의미로 타조에 비유하였다.
- (2) 타조는 우둔한 동물이어서 알을 낳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 버리는 습관이 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녀를 아무렇게나 대했고 오히려 우상 제물로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다(참조, 렘 32:35).
- (3) 인간은 악의 생활에 치달게 될 때, 마땅히 해야 할 의무까지도 내팽개쳐 버린다. 이것은 죄악의 악순환(惡循環)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에서 탈피하려면, 현재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된 생활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참조, 렘 35:15; 절 18:21).

5. **㉠** 유다 백성이 당한 기근은 어떠한가? (4, 5절)

- ㉠** (1) 젃먹이들이 어머니들의 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목이 सू척해졌고, 어린이들도 떡이 부족해서 굶주려 죽어 갔으며, 귀족들도 거름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들을 찾는 처량한 신세로 변했다.
- (2) 이러한 기근의 참상은 이미 렘 21:9에서 예언하였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그 예언을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본질의 말로써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였다.

- (3) 실로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생활 실상은 비참했다. 기근으로 인해 굶주린 부모들은 자녀들을 요리하여 쇠고기나 양고기처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참조, 렘 19:9).
-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해지면 해질수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삼상 15:22).

6. **㉠** 왜 예레미야는 소돔의 죄악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비교하였는가? (6절)

- ㉡** (1) 소돔은 당시 유다 민족들에게 죄악의 대명사로 쓰여졌다(참조, 사 1:9, 10).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돔을 비교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였음을 외쳤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일순간에 죽임을 당한 소돔의 경우보다 지속적으로 고통받았던 유다의 고난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유다의 죄악을 소돔의 죄악보다 크게 보았다는 말이다.
- (3) 만일 유다인들이 소돔인들이 범했던 엄청난 죄악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들을 소돔인들과 같고 오히려 더 사악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이런 가증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다(겔 16:46, 47).
- (4)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보용하실 때, 언제나 정당하게 행하시므로 우리가 받는 벌의 경중(輕重)에 의해 우리는 범한 죄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한다(Calvin).

7. **㉠** '존귀한 자'란 어떤 사람을 비유로 나타낸 말인가? (7, 8절)

- ㉡** (1)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실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을 가리킨 말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의 모든 가공적인 형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으며, 당신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나실인들에게 규정하셨다(참조, 민 6:1-21).
- (3)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실인들을 명시하였다.
- (4) 사실 본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나실인처럼 절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생기를 잃어 쇠퇴하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용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그와 동시에 율법에 따라 행하는 예배가 백성의 사악하므로 인해 타락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본서 전체에서 나타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 (6)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활 역시 나실인들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행할 바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단적으로 지적한다.
- (7) 성도라면 적어도 살아가는 자세가 구별되어야 하고 삶의 궁극적 목적 역시 불신자와는 달라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들이키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재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후 6:11-18).

8. **㉠**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유다 백성이 당한 기근은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 (2) 참혹한 죽음은 항상 공포스러운 대상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죽음을 기근과 비교하여 유다 백성에게 닥친 벌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보여 준다.
- (3)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환난의 수백 배 수천 배 더 할지도 모른다(참조, 눅 16:20-31).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세상의 풍파에 끊임없이 대항하며, 주님이 오시 날을 기다려야 한다(참조, 막 13:35; 고전 15:34).

9. ㉠ 유다의 부녀들이 행한 악행은 어떠했는가? (10절)

- ㉠ (1)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2) 예레미야는 이러한 부녀들 앞에 ‘자비로운’이라는 말을 붙여, 선량한 어머니로서 행동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3) 실로 유다 백성의 강박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마땅히 지녀야 하는 자비로움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4) 이러한 사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이나 게으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야 한다(참조, 엡 4:1).

10. ㉠ 예루살렘 성의 파멸은 어떠하였는가? (11, 12절)

- ㉠ (1) 예루살렘 성의 파멸은 완전한 파멸이었고 놀라운 파멸이었다.
 (2)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어느 한 부분도 남겨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시온에’ 불을 ‘붙여서’ 집들을 사르고, 땅처럼 평평히 만들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소실되는 것 이상으로 ‘지대’(址臺)를 살라 버렸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말한다.
 (3) 이러한 처지는 세상의 왕들에게 놀라운 일로서 전파되었다(참조, 사 52:15). 이방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으리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실 때, 초개(草芥)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4) 이것은 인간의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선 미천한 자에 불과하다.
 (5)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참조, 골 1:10; 살전 2:12).

11. ㉠ 거짓 선지자를 따른 유다 백성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14-16절)

- ㉠ (1) 소경처럼 방황하게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들이 외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외국인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2)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였으며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뒤를 따라 의인을 죽이는 데 동참하였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3) 이단의 세력들은 현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같이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참조, 마 24:24; 계 19:20).

12. ㉠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바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17절)

- ㉠ (1) 애굽 나라이다.
 (2) 유다 민족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본 데에 있다.
 (3) 성도들은 난관을 당할 때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참조, 사 3:1-3).

13. ㉠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 백성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18-20절)

- ㉠ (1) 유다 백성이 거리에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사냥하듯이 잡았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혜택으로 장차 열국 중에서 자신들이 잘 살 줄로 굳게 믿었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힘으로 허사(虛事)로 돌아갔다.
 (2)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궁지에 몰리게 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에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데서도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최소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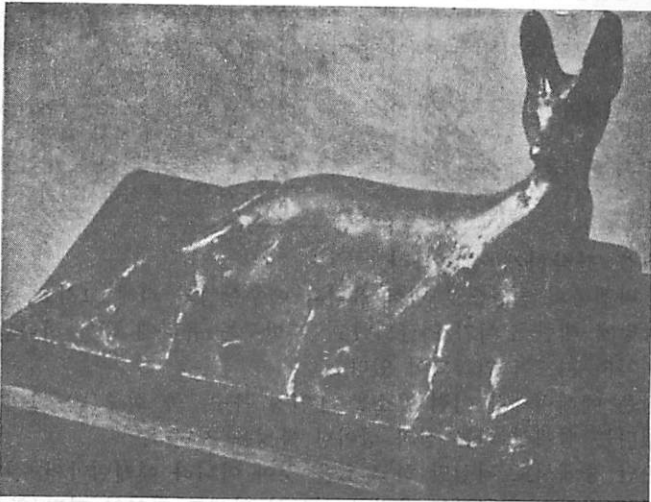
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경책하시며 기다리신다.

14. **Q** ‘에돔’ 과 ‘시온’ 은 무엇을 각각 가리키는 말인가? (21, 22절)

- A** (1) ‘에돔’ 은 유다 민족의 원수들을 지칭하며 ‘시온’ 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유다 백성의 원수들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될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예언하였다.
 (3)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나 결국 불신 세력들은 망하게 되고,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연단으로 여겨야 한다(참조, 롬 5:4;8:17).

화보자료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이 브론즈(bronze)는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주민들이 겪은 비극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어미가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던 일도 기록하고 있다(10절). 이러한 일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들개도 자행하지 않는 일이니(3절)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었던 고초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제 5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다

단락구분 1-18 포로된 유다 백성이 당한 짐상 / 19-22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다

1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2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3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쉼을 얻으오며

5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늘렸사오니 우리가 끈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8 종들이 우리를 관할함이며 그 손에서 견져 낼 자가 없나이다

9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 주립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나이다

11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육보였나이다

12 방백들의 손이 매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3 소년들이 땀들을 지오며 아이들이 섶을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14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5 우리 마음에 회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16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17 이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18 시온 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거서 노나이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1. ㉠ 본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전반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피해 그리고 포로 시절의 치욕과 고뇌와 낙망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었고, 후반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다.
- (2) 특히 본장은 예레미야가 이런 호소를 1인칭 복수, 즉 회중(會衆)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장과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 (3)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참조, 고후 4:7-18).

2. ㉠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받기 위해 간구하였다.
- (2)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받은 특이한 축복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할 때 기꺼이 도움을 손길을 허락하시며 특히 우리들이 부당하게 압제당했을 때는 더욱 우리를 돌보신다(참조, 렘 30:11).

3. ㉠ 왜 예레미야는 '기업이 외인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는가? (2절)

- Ⓐ (1)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4백여 년 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기업의 땅(참조, 창 17:8)이 이제는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 (2)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여 그들이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축출당하며 그 집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 (3)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의 죄악이 극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참조, 왕상 11:11).

4. ⓐ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외로운 자식과 과부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괴롭히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기에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많아진 것을 보여 준 것이다.
- (2) 이러한 일은 한 나라가 질병이나 전쟁에 의해서 파멸되었을 때에 으레히 일어난다.
- (3)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서 그토록 많은 과부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많은 어린 아이를 본다는 것은 실로 슬픈 광경이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의 말로(末路)는 비참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항상 경성하여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골 4:2).

5. ⓐ 유다 백성이 당한 고통은 어떠한가? (4,5절)

- Ⓐ (1) 극심한 재난 때문에 물조차도 값을 치르고 사먹어야 했었고 갈대아인들은 틈만 있으면 유다 백성을 못살게 굴어서 유다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했다.
- (2) 한때 마음놓고 자기 소유의 나무를 쓸 수 있고 포도주와 곡식을 모을 수 있었던 처지에서, 돈을 주고 사지 않는 한 한 방울의 물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다.
- (3) 또한 갈대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 (4) 실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보상을 받아 마땅했다. 그들은 철과 같은 목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명을 매도록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마치 길들일 수 없는 사나운 들짐승과도 같았다.
- (5) 그들의 목이 것처럼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바벨론 민족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자만심과 완악함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
- (6) 우리가 지닌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자칫하면 악을 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참조, 왕상 11:38).

6. ⓐ 유다 백성들이 애굽인과 앗수르인과 악수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이것은 백성들이 곤궁하여 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했으므로 거지처럼 양식을 구걸했다는 뜻이다.
- (2) 그 당시에 애굽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친구인 척하며 그들과 조약을 체결했다(참조, 호 12:1).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매춘부와 같이 자신들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하는 모욕을 애굽인들에게 당했다.
- (3) 정작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조건(참조, 신 15:6)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쌓은 악 때문에 유다는 오히려 비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4)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허락된 축복을 우리가 행한 악 때문에 거부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근실(勤實)한 신앙 생활을 해야겠다.

7. ⓐ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란 의미는 무엇인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보응하신다는 뜻이다.
- (2)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의미는 그 후손을 이유없이 벌하시고 열조는 벌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겔 18:20의 선언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열조의 죄악을 담당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언하 시듯이 자신의 복수를 삼사 대에까지 미치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출 20:5; 램32:18).
-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응을 후손들에게까지 제속하셨다. 그토록 엄하게 벌을 받은 자 녀들이 또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도 벌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 (5) 우리가 쌓는 죄악은 우리 당대에만 보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 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는 과거의 죄도 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소급하 여 회개하여야 한다.

8. ㉠ 유다 백성들이 당한 사회적인 참상은 어떠하였는가? (9-12절)

- ㉠ (1) 처처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의 피부는 검게 타들어 갔으며, 바벨론의 군사들은 시온의 부녀들과 유다의 처녀들을 희롱하였고, 방백들의 손을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존 경을 받았던 장로들도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 (2) 그러나 정작 여자들이 추행당함과 방백들의 손을 매다는 일들은 지나간 일이었지만 바 벨론이 남긴 고통은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당시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 (3) 이와 같이 죄악의 결과는 도덕적 타락으로 치닫고, 그 재난의 악순환은 그 일이 일단락 된 후에도 신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의뢰와 간구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참조, 시 22:5).

9. ㉠ 연약한 자들에게 미친 환난은 무엇이었는가? (13, 14절)

- ㉠ (1) 나이 어린 소년들이 과중한 일로 인해 쓰러졌고, 노인들이 성문 어귀에서 행했던 재판 이나 사교 모임조차도 폐기되어 버렸다.
- (2) 이것은 노인이나 소년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만 고난이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 (3) 실로 바벨론인들이 이와 같이 유다인을 박해한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말살 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공동체도 구성할 수 없도록 하려던 것이었다.
- (4) 이처럼 오늘날에도 악의 세력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화시키며 자녀들에게 저항치 못하도록 막는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진 하나의 공 동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시킴으로 자기들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참조, 빌 1:27, 28).

10. ㉠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란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면류관은 회락과 영예의 상징인데 이것이 떨어졌다 함은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영예가 박탈되었다는 말이다.
- (2) 이러한 재앙의 원인은 그들의 범죄에 있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오호라 우리의 범 죄함을 인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그러한 처벌 아래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지식은 자만심을 무기력하게 하며, 믿지 않는 자 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설 때 털어 놓는 시끄러운 불평을 억제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한다(참조, 요일 1:9).

11. ㉠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7, 18절)

- ㉠ (1) 하나님의 저주로 유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그 슬픔으로 인하여 눈까지 어두 워졌다. 이러한 저주의 주된 원인은 시온 산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 거하신 시온 산은 이제 마치 황량한 동굴처럼 여우들이 우거하게 되었다.
- (3) 이와 같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마저 없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자숙하며 성도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행

등을 해야겠다.

12. ㉠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의 통치를 가리킨다(참조, 계 20:1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더 명백히 나타내 주고 있다.
- (2)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언급하였다.
- (3) 성도가 현실에만 집착할 때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상에 영구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경이 우리의 눈을 구름처럼 가릴 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당황하게 된다.
- (4)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급변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시다(참조, 히 13:8).

13. ㉠ 예레미야가 탄식한 의도는 무엇인가? (20절)

- ㉠ (1)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따르게 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 하심 아래로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2) 이 탄식은 다윗의 시(시 13:1; 22:1)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 성령에 따라 간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실한 자들도 때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복종과 겸손을 버렸던 것은 아니었다.
- (3) 우리는 많은 재난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 8:25; 갈 5:5).

14. ㉠ 예레미야의 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21절)

- ㉠ (1) 유다 백성이 이전에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예레미야는 원했다.
- (2) 예레미야는 자기의 소망을 옛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근거하여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셨기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으며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줄 것을 간구하였다.
- (3)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중한 심판을 옮기시며 우리가 전에 누렸던 기쁨과 번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드려야 하겠다.

15. ㉠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란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 ㉠ (1) 예레미야는 강한 반어법을 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참조, 롬 11:1-7).
- (2)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3) 우리는 이 세상의 불행과 교회의 비천한 상태를 슬퍼하면서도 신자들이 가는 참시온은 황폐해질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다.

연구자료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

유대인들의 제반 규례와 법률 체계는 인간이 거룩한 생활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도(啓導)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참조, 출 19:5-8). 이 점은 형벌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유대인들이 범법자를 징계하였던 형벌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해 보려 한다.

1. 사형(死刑)

① 돌로 치م : 이 같은 형벌에 해당하는 죄로는 신성 모독죄(레 24:15, 16; 행 7:57, 58), 우상 숭배죄(레 20:2-5; 신 17:2-7), 간음죄(신 22:22, 23), 안식일을 범한 죄(민 15:32-36) 등이 있었다.

② 칼로 치ム : 한 성읍 주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들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신 13:12-15). 예레미야는 이에 대하여 본서에서 언급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다'(2:21)라고 하였다.

③ 화형(火刑) : 제사장 딸이 간음한 경우(레 21:9), 한 남자가 아내와 장모를 범한 경우, 세 사람 모두 화형당했다(레 20:14).

④ 교수형(絞首刑) : 실제적인 사형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 다만 사람들을 경계시킬 목적으로 이미 죽은 범법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을 뿐이다(창 40:22; 신 21:23; 수 8:29).

2. 태형(答刑)

이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다. 재판 결과 태형이 합당한 경우 최고 40대까지의 매가 선고될 수 있었다(신 25:1-3).

3. 절단(切斷)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상대방 남자의 음낭(陰囊)을 잡았을 경우 그녀는 손을 잘리우는 형에 처해졌다(신 25:11, 12).

4. 투옥(投獄)

투옥은 대개 재판을 기다리는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을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참조, 렘 37:11-21).

5. 노예로 삼음

이것은 민사상(民事上)의 문제로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주(債主)의 종살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참조, 왕하 4:1).

6. 손해 배상과 벌금형

이에 대하여서는 레 24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손해 배상과 벌금형'을 참조하라.